

목 차

■ 병술년 대내외 주요 트렌드 변화

Executive Summary 1

I. 2006년 대외 7대 트렌드 변화 3

II. 2006년 대내 7대 트렌드 변화 29

■ HRI 경제 지표 53

1. 2006년 대외 7대 트렌드 변화

□ 개요

- 최근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인 현상과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 분석 자료를 토대로 2006년에 심화되거나, 새롭게 나타날 세계 정치, 경제, 경영 3개 부문의 7대 트렌드를 선정함

□ 대외 7대 트렌드

① 美日 보수 연합 강화

- 미국과 일본 정부의 신보수주의 강화로 중동 정세 불안 지속과 북한 문제의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동북아에서는 정치적인 긴장 관계는 지속되나 경제적인 관계는 보다 긴밀해지는 政冷經熱 현상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② New Cold War

- 국제 정치 및 외교, 군사, 경제면에서의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군사적 잠재 적국으로 대두되면서 美中 관계의 대립이 심화되는 'New Cold War' 현상이 가시화될 예상임

③ 미국발 세계 쓰나미 경제 우려

- 고유가 등 물가 상승 압력에 의한 美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미국 자산시장 거품이 붕괴될 경우, 세계 경제 전반이 불황에 빠지는 쓰나미 현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④ 동북아 물류 전쟁

- 중국의 양산항 1단계 터미널이 2005년 11월 말 개장하였고, 韓中日이 물류 기반 확대 전략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韓中日의 물류 확보 전쟁이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⑤ 중동, 새로운 성장 원천

-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중동 지역에 오일머니가 급증하여 중동 지역 내 개발 수요가 크게 증대할 전망으로, 중동이 세계 경제 성장의 새로운 활력소로 부상할 것이 예상됨

⑥ 나노경제화

- 대량생산경제(Mass Economy) 체제에서 소비자 개인의 필요에 정확히 부응하는 서비스와 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개인 및 소량 단위의 거래 규모가 확대되는 나노경제(Nano Economy)가 부각될 전망이다

⑦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 디자인력

- 소비자 기호와 취향의 다양화와 고급화로 각 상품의 특성을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력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결정의 핵심요소로 더욱 중시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및 대응 방안

- 정부는 이러한 세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중재자 역할 및 美日 공조체제의 강화를 통해 경제적 실익 추구하고 안전 보장 확보 등에 힘써야 하며, 또한 중동 지역 진출 기업 지원, 세계 경제 위기 조기 경보 시스템 마련 등 기회 활용과 위기관리 및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 기업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 고조로 인한 리스크 회피를 위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시장에서의 신사업 진출 전략 구축, CEO의 디자인 리더십 강화, 소비자 욕구 충족을 전략 구축 등의 경영 전략이 필요함

II. 2006년 대내 7대 트렌드 변화

□ 개요

- 2006년에 예상되는 국내 정치, 경제, 산업, 남북, 경영의 5대 부문의 7가지의 특징적인 변화 양상을 선정함

□ 대내 7대 트렌드

① 정치와 부동산 경기의 딜레마

- 올 해 예정되어 있는 동시지방선거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함
 - 최근 10여 년 동안 총 8차례의 전국 선거중 7번의 사례를 분석해 볼 경우,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후보자들의 인기 영합적 공약의 남발로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 심리가 높아져 선거 직전의 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모두 상승세를 기록함

② 복합 무역의 확산

-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르는 상품 교역의 한계 등으로 서비스 부문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상품과 서비스 등이 연계된 복합 무역 시대로 진입할 전망이다

③ 소비 환류의 단절

- 상위 계층의 구매력이 계속 증가하여 고급 소비 시장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나, 저소득 계층의 구매력이 확충되지 못하고 있어 소비 환류의 단절 현상이 심화될 예상임

④ 기업 판도의 재편

- 2006년 M&A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어서, 투자 위험을 줄이면서 수익 창출과 기업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M&A 전략이 보다 더 강화될 것임

⑤ 디지로그(DigiLog)의 확산

- 디지털 제품과 아날로그 인프라,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적 정서의 융합을 의미하는 디지로그 현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⑥ 통일 경제 기반 확대

- 남북 부문에서는 개성공단 사업 본격화, 개성 및 백두산 관광 등으로 남북 경협이 한 단계 성숙될 예상임

⑦ 컨버전스 전성시대

- 경영 부문의 경우 IT 기술의 발전으로 기술과 제품의 컨버전스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산업 구조, 소비 패턴, 경영 활동의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및 대응 방안

- 이러한 국내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부동산 경기 안정, 제조업과 동등한 서비스 산업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PEF의 투자 제약 요건 완화, 남북 경협 기금 확충 등의 정책이 요구됨
- 한편 기업은 서비스 능력 제고, 생산 제품의 고급화, M&A 시장의 적극적 참여, 인간중심의 제품 및 기술 개발 노력, 경영 활동의 융통합 등의 노력이 필요함

병술년 대내외 주요 트렌드 변화

I. 2006년 대외 7대 트렌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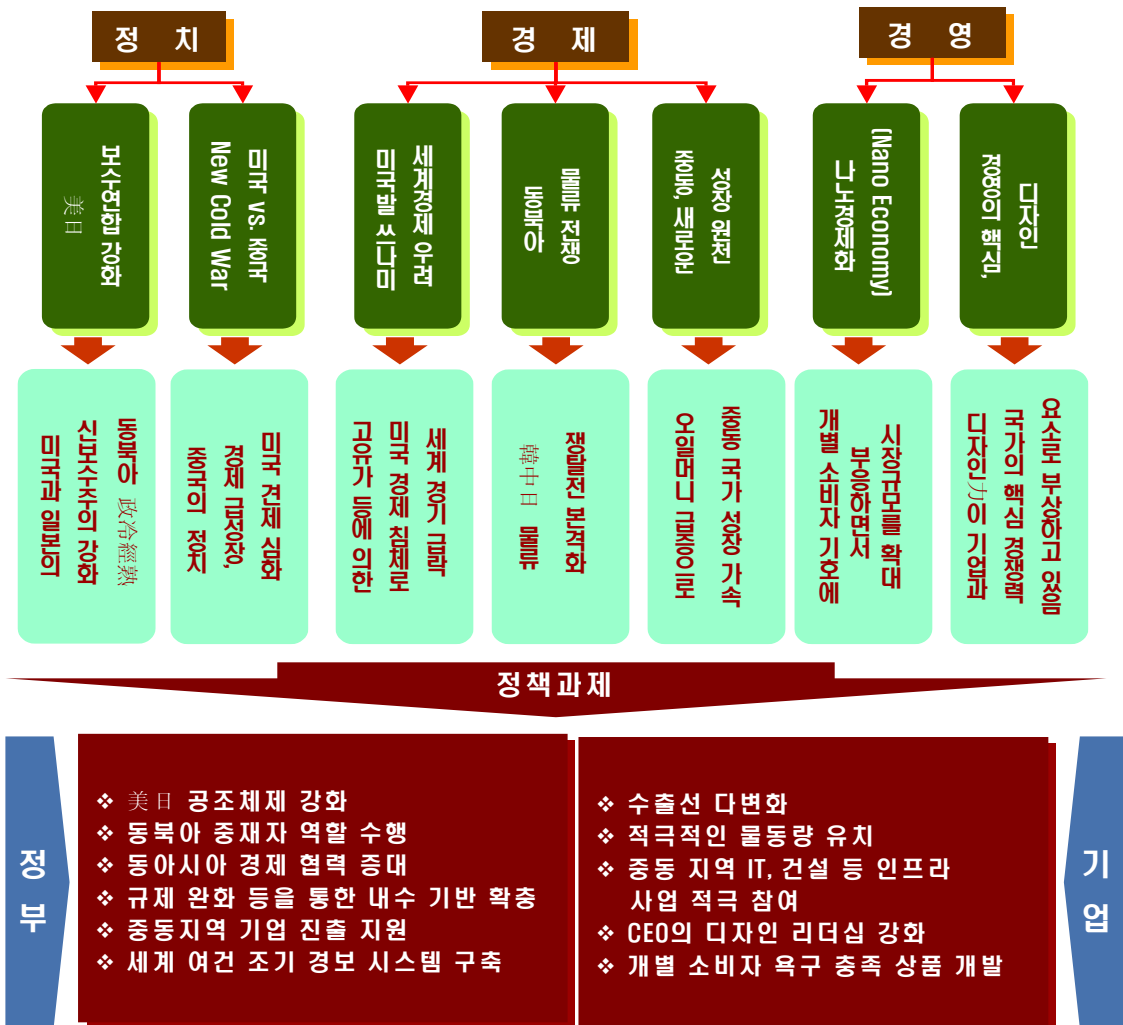
1. 개요

최근 나타나는 세계적 현상과 전망 분석 자료들을 통해, 2006년 예상되는 7대 트렌드를 선정

-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인 현상과 이코노미스트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 분석 자료를 토대로 2006년에 심화되거나, 새롭게 나타날 세계 정치, 경제, 경영 3개 부문의 7대 트렌드를 정함
- 정치 : 미국과 일본 정부의 신보수주의 강화로 동북아의 政冷經熟(정치적인 긴장 관계는 심화되나 경제적인 관계는 성숙한다는 의미) 현상 심화와 중국의 국제 정치 외교·경제면에서의 급성장에 의한 미국의 견제 강화로 美中 관계의 대립 양상이 심화(New Cold War)될 것으로 전망됨
- 경제 : 미국 경제의 침체로 세계 경제 전반이 타격을 입는 세계 경제의 쓰나미 현상, 각국의 항만 개발 경쟁으로 동북아 물류 전쟁이 격화될 것이며, 세계 경제 성장의 새로운 원천으로 중동 지역이 다시 각광을 받을 것임
 - 세계 경제의 쓰나미 현상 : 고유가 등 물가 상승 압력에 의한 미국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미국 자산시장의 거품이 붕괴하는 경우에 세계 경제 전반이 침체에 빠지는 세계 경기 불황의 쓰나미 현상이 우려됨
 - 동북아 물류 전쟁 : 동북아에서는 중국의 양산항 1단계 터미널이 2005년 11월 말 개장함에 따라 韓中日 주도의 물류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벌어짐
 - 새로운 성장 원천, 중동 :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중동 지역에 오일머니가 급증하여 중동 지역 내 개발 수요가 크게 증대할 전망임
- 경영 : IT 발전으로 개별 소비자 대상의 나노경제가 발전하고, 새로운 경쟁력 원천으로서 디자인력이 강조될 것임

- 나노 경제 : 인터넷 등 IT 기술의 발전과 보급,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로, 개별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는 서비스와 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시장 규모를 확대시키는 나노경제가 지식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함
-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 디자인력 : 소비자들의 기호와 취향이 다양해지고 고급화되면서 각 상품의 특성을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력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결정의 핵심 요소로 더욱 중시됨

< 2006년 대외 7대 트렌드 >



2. 대외 7대 트렌드

① 美日 보수 연합 강화¹⁾

미국의 팍스아메리카나 체제 구현, 일본의 정치 우익화 등의 보수주의 강화 현상이 나타남

○ (美日 보수 세력 강화) 美日 양국은 정부 내 네오콘 세력을 강화시키고 북한 문제 해결, 동북아에서의 일본의 고립 타개와 미국의 팍스아메리카나 유지 등을 위해 동맹을 강화하고 있음

- 美日 양국내 보수 세력 강화 :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21세기 팍스아메리카나'의 구현을 위해, 일본은 제3차 내각 구성에서 우익 정치인들을 내각 전면 배치하면서 네오콘 세력들의 강화가 이루어졌음

· 미국 : 2001년 9.11 테러로 인한 '테러와의 전쟁' 선포 후 미국의 외교정책 전면 미국 '일방주의'와 '개입주의'²⁾를 통해 팍스아메리카나를 지키고자하는 네오콘 (Neo-Conservatism, 신보수주의) 세력들이 부각됨

· 일본 : 2005년 10월 31일 단행된 코이즈미 3차 내각 구성에서 아베 신조 관방장관, 아소 타로 외무성장관 등 대표적인 우익 보수 정치인들이 일본 정치 전면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들은 코이즈미 내각의 구조개혁 노선의 정점에 있을 뿐 아니라 일본 평화헌법의 개정 찬성론자들임.³⁾⁴⁾

1) 양진석, '미국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의 역사적 전개,' 「군사세계」, 2004년 1월; 박현정, '미국의 對중국 태도 변화와 전망,' 「KIEP 세계경제초점」, 2005년 11월 22일; 日本經濟新聞; 현대경제연구원 등 참조.

2) 딕 체니, 프란시스 후쿠야마, 폴 울포위츠, 도널드 럼스펠드 등 신보수주의자들이 부시 행정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결성한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에서 세계 평화를 수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력은 항상 세계 최고여야 한다는 일방주의를 강력히 고수하고 있음. 한편 일방주의를 배경으로 9.11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는 테러집단과 그들을 지원한 국가들을 응징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무력 침공, 테러 집단의 대량살상 무기 사용에 대한 무력 저지 목적의 이라크 선제 침공 등 세계 정치에 적극 개입함(개입주의: Intervetionism)으로써 '21세기 팍스아메리카나'를 지향하고 있음.

나아가 미국과 일본은 동북아와 중동 지역에서의 복잡한 현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동맹을 강화

- 美日 보수 연합 강화 : 美日 양국은 북핵 문제, 동북아에서의 일본의 고립과 미국의 영향력 견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에 대한 대응 등 복잡한 현안들을 타개하기 위한 동맹을 강화하고 있음
 - 북핵 문제 : 美日 양국은 북핵 해결, 일본인 납치문제 등 북한의 인권과 관련된 정치 쟁점 사항 등의 해결을 위한 동맹 강화가 필요함
 - 일본 고립 탈피와 미국의 영향력 견지 : 북한의 親中,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강화, 韓中 협력 심화 등으로 일본은 고립 상태이며, 미국은 이러한 동북아 주요국의 움직임에 대한 견제와 영향력 유지가 필요함
 -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 미국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고 두바이 지역 자원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 일본의 군사 전진 기지화가 필요하며, 일본은 미군 주둔으로 동북아의 잠재적 적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확보할 수 있음
 - 미군 재편성과 일본의 남진 정책 : 미군 재편성에 있어서 일본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빌미로 남진 정책 -센카쿠 열도 영유권 주장 등- 을 추진하고 있어, 美日의 전략적 움직임이 일치함

○ (전망 및 시사점) 美日 양국 네오콘 세력들에 의한 동맹 강화는 동북아 政冷經熱⁵⁾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

- 3) 아베 관방장관과 아소 외무성장관은 코이즈미 일본 수상의 신사 참배를 옹호하는 자들로 그 자신들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아베 관방장관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후원자일 뿐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 총리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아소 외무성 장관은 '창씨개명은 조선인들의 희망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등 잇따른 정치적 망언으로 한일 양국 간 역사 갈등의 주역이 된 인물임.
- 4) 일본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대내적으로는 구조개혁 압력 해소, 대외적으로는 북핵 및 중국·러시아 등 잠재 적국 견제,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한 세계에서의 일본 위상 격상 등을 위한 독자적인 강경 외교 구현이라는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네오콘 세력의 강화가 필요했음.
- 5) 정치적으로는 상호 견제와 대립 양상을 지속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상호 의존 및 협력이

미일의 보수화로 동북아의 政冷經熟 현상이 예상되어, 우리 정부의 균형과 실용적 외교 정책이 요구됨

이 크며, 미국의 네오콘 세력의 강화로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은 가속화될 전망으로 한국 정부는 동북아에서의 중재자 역할 수행을 통한 실익 추구하고 韓美 동맹 체제를 유지해야 함

- 실익 도모를 위한 對美 관계 구축 :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포괄적이고 완전한 동반자'로의 對美 관계 발전을 통해 실익을 추구해야 할 것임
 - 중동 지역 정세 불안 지속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미군에 의해 내부 정치적 불안이 해소된 국가들의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이란, 파키스탄, 인도 등과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중동 및 서남아시아 지역 정세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음
 - 미국과는 '포괄적이고 완전한 동반자' 관계 구축 : 미국과는 다양한 대화 채널 확보를 통해 군사뿐 아니라 정치·외교·경제 등의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완전한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통한 실익을 추구해야 할 것임
- 동북아 중재자로서의 입지 구축 : 향후 동북아에서는 政冷經熟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은 '균형적 실용 외교'를 통한 중재자로서의 입지 구축이 필요함
 - 동북아 政冷經熟 : 동북아에서는 韓日, 中日, 日露간 역사 인식과 영토 분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으나 경제 협력은 유지되는 政冷經熟이 전망됨
 - 한국은 '균형적 실용 외교'를 통한 중재자 입지 구축 필요: '균형적 실용 외교'를 위해 평화 및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 건설에 대한 역내 국가들과의 가치와 인식 공유 및 협조 유도를 위한 조용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동북아 중재자로서의 입지를 다져야 할 것임

진전되어간다는 의미임.

② New Cold War - 중국 對 미국⁶⁾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과 중국간의 새로운 냉전 체제인 New Cold가 시작될 전망이다

- (美中 New Cold War 개막) 미·소간 이념 및 무력 대립 심화에 의한 냉전(Cold War)체제가 붕괴된 이후 세계는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를 유지하였으나, 정치·군사·경제면에서 급성장한 중국이 미국의 군사적 잠재적 적국으로 대두되면서 美中間 새로운 냉전이 시작됨
- (New Cold War 진행 현황) 美中 新냉전은 경제, 군사, 정치·외교 등 전면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경제적 면에서 무역마찰 가능성 확대 : 미국의 방대한 對中 무역 적자는 미국의 위안화 평가 절상 압력 행사 등 美中間 무역 마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방대한 미국의 對中 무역 적자 : 미국의 對中 무역수지 적자액은 2005년 9월 현재까지 1,463억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 총액(5,536억 달러)의 25%임

< 냉전(Cold War)과 신냉전(New Cold War)의 차이 >

구 분		정 치	경 제	전 략
냉전 (Cold War)	배경	· 미·소간 핵 경쟁 ·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쿠바·아프가니스탄 등 개도국 위기로 미·소간 이념 및 무력 대립 심화		
	종결 원인	· 소련의 민주화 정권 등장 및 동구권 국가들의 체제전환	· 무리한 군비확장에 의한 경제 악화	· 군비고도화에 의한 안전보장 정책의 한계
新냉전 (New Cold War)	배경	· 중국의 정치·군사·경제면에서의 급성장 · 팍스아메리카나(일방주의)와 중국의 확장주의가 충돌		
	전략	· 미국: 컨게이지먼트(Congagement=Containment+Engagement) · 중국: 정치적으로는 對美 자극 자제, 경제협력 중심 세력으로 확대		

6) 이하 논의는 James Pinkerton, 'Superpower Showdown,' *New America Foundation*, November 7, 2005; Andrew Small, 'Preventing the Next Cold War: A View from Beijing,' *The Foreign Policy Centre*, October 2005; 『ワカース』 308号, 2005年 11月 1日; 중앙일보, 2005년 11월 19일; 현대경제연구원 등 참조.

미중간 경제적 면에서 무역 마찰, 정치·외교적 면에서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 등 전면적 갈등이 표출됨

- 미국의 對中 제재 : 미 상원은 위안화 환율 개혁 시기가 늦어질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해 27.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 상정 등 對中 제재안 마련과 동시에 시장 개방 확대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 경제면에서의 對中 대응 강도를 높여가고 있음
- 미국의 정치·외교적 對中 봉쇄 전략 구체화 : 부시 정부는 이스라엘과 EU에 대한 對中 무기 금수 조치 강요, 주요 각료들의 중국의 군비 확산 비난, 아시아 지역 협력 강화 등 對中 봉쇄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
 - 중국은 미국의 잠재적인 적국 : 부시대통령은 2002년 10월 12일 '국가안전보장전략(부시독트린)'에서 중국을 잠재적인 적국으로 상정하고 있음⁷⁾
 - 대만에 대한 무기 공여 지속 : 2001년 1월 파월 국무장관은 美상원외교공청회에서 '중국은 전략적인 경쟁상대'라는 기본 전략과 '대만관계법에 근거하여 대만에 대한 무기 공여 계속'을 표명함
 - 국제 회의에서의 중국의 군비 확장 견제 : 럽스펠드 美 국방장관은 2005년 6월 6일 아시아·태평양지역 국방장관회의인 '아시아안전보장회의'에서 중국의 군비 확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 이에 대해 중국의 추이텐카이(崔天凱) 외교부아시아국장이 강력히 반론함
 - 對中 무기 금수 조치 강화 : 미국의 압력에 의해 EU의 對中 금수 조치가 연장되었으며, 이스라엘은 對中 무기 수출을 미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협정(2005년 6월 16일 라이스 국무장관 이스라엘 방문시)을 맺음

7) 부시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중국은 군사력 정비를 통해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지만, 그것이 착오임을 알려주겠다. 미국은 미국의 잠재적인 적이 미국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군사력을 구축하고자하는 의도를 꺾을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아시아 지역 군사 협력 강화 : 미국은 인도에 대한 군사 지원, 부시대통령 몽골 방문을 통한 군사협력 방안 논의, 베트남과의 군사외교 추진, 駐日 미군 재편 협상 타결 등 對아시아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향후 미국은 정치·군사·외교적 면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경제적 면에서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컨게이지먼트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됨

- (전망) 미국은 컨게이지먼트(Congegement) 전략을 통해 정치·군사·외교 면에서는 일방주의를 달성하고 경제 면에서는 對中 협력 체제구축을 추구하고자 할 것임. 이에 반해 중국은 안정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면서 지속적인 군비 확산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어 양국 간 냉전 양상이 심화될 것임
- 미국의 컨게이지먼트 전략 추진 : 미국은 정치·군사·외교 면에서의 對中봉쇄(Containment)전략과 경제면에서의 對中 포용(Engagement)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컨게이지먼트(Congagement) 전략을 추진할 전망이다
 - 정치·군사·외교 면에서의 봉쇄전략 심화 : 미국은 일본, 인도와의 군사협력 강화와 필리핀, 호주 등 아시아 주요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봉쇄함으로써 미국의 정치·군사·외교적 일방주의를 견지하고자 할 것임
 - 경제면에서는 포용 전략 추진 :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중국이 쥐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있어서도 중국의 전략적인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제면의 對中 포용정책은 어쩔 수 없는 전략임

중국은 안정적 성장을 우선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군사적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전망

- 중국의 안정 성장 속 군비 확산 : 중국은 당분간 경제성장을 전제로 對美 관계를 풀어갈 것이나, 군비 확산은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주력 : ‘다극적 세계⁸⁾’라는 명목 하에 장기적인 對美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됨
 - 점진적인 군비 확산 추진 : 대만 합병 지속 추진, 탄도 미사일 재배치, 유인우주선 개발 등 장기적인 군비 확산 추진, 對美 강경 발언을 통한 미국의 對中 전략 파악 등 전략적인 군비확산을 추구하고 있음
 -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 : 2005년 7월 14일 朱成虎 國防大學防務學院長(少將)은 북경 외신기자단에게 중국과 대만의 분쟁에 미국이 끼어들 경우 ‘중국이 미국에 대해 핵 공격을 감행할 용의가 있다’고 핵 선제 사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
 - 주변국과의 연계 강화 : 미국이 이라크전에 몰두하고 있을 때 중국은 파키스탄과 ‘안전 보장 조약’ 체결, 필리핀과 ‘방어 협력 협정’ 체결,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적극 추진하는 등 미국의 포위망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고 있음

- (시사점) 한국은 韓美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과의 경제·외교 관계 강화를 통해 韓中 관계를 심화시켜 美中 관계 악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할 것임

8) 현재 중국은 25개 FTA를 진행 중으로 이는 중국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음.

③ 미국발 세계 쓰나미 경제 우려⁹⁾

고유가에 의한 미 경제 침체가 발생할 경우, 대미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경제 쓰나미가 우려됨

- (세계 경제의 쓰나미 현상) 국제 유가가 지속 상승할 경우 美 경제의 내수 침체가 유발되고, 이에 따라 미국에 대해 무역과 자본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동반 경기 급락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존재함
- (국제 유가 급등 시 미국의 내수 침체 불가피) 美 정부의 경기 조절 정책이 한계를 보이고 있어, 고유가로 물가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내 소비 및 건설 경기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높음
 - 美 정부의 경기 조절 정책의 한계 : 재정수지 적자 문제 지속, 통화 정책의 효과 미흡 등 美 정부의 경제 정책의 효과가 의심을 받고 있어, 경기 급랭 시 美 정부의 효과적인 경기 조절 능력 발휘가 어려운 상황임
 - 재정 정책 운용 폭의 한계 :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GDP의 약 3.4%에 달하는 재정수지 적자 문제가 상존하고 재정 운용 폭이 축소됨
 - 통화 정책의 실물 파급 경로 차단 : 12 차례에 걸친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는 미국으로 대량 유입된 개도국 자금의 영향으로 상승하지 않고 있음
 - 美 소비 및 건설 경기 하강 우려 대두 : 이번 경기 호황 국면을 이끌었던 개인 소비와 건설 경기가, 유가 급등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점증함

9) 이하 논의는 Richard N. Cooper, 'Living with Global Imbalances: A Contrarian View,'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olicy Briefs in International Economics*, No. PB05-3, November 2005; Colin I. Brandford, Jr. & Johannes F. Linn, 'Global Economic Governance at a Crossroads: Replacing the G-7 with the G-20,' *The Brookings Institution, The Brookings Institution Policy Brief*, No.131; UFJ總合研究所, '擴大する中國の外貨準備と對米証券投資: 投資分散が徐々に進んでいる可能性あり,' 「中國ビジネスレポート」, No.30, 2005年 8月 23日; 日経ビジネス, 2005年 10月 17日, 21日; 권오현, 정재오, 안상경, '부동산가격 버블의 형성과 붕괴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 「건설산업동향」, 2005-08, 2005년 7월 5일;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등을 참조.

미국 경제의 버팀목인 주택 경기가 급랭할 우려가 높아, 부의 효과로 소비 침체 우려가 증대

- **고유가에 따르는 구매력 축소 및 심리 위축** : 현재 개인 소비 부문은 전기대비 증가율이 1% 내외로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유가 급등에 따르는 물가 상승 압력의 확대 및 소비 심리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유가가 1배럴 당 77달러에 달하면 미국 소비의 원천인 가계의 구매력 증가율은 제로(0)가 되는 것으로 추정됨 (東洋經濟, 2005年 10月 17日 참조)

- **주택 경기 하강 우려** : 또한 가계의 구매력 감소로 2005년 3/4분기에 들어 신규 주택 판매가 감소세로 반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동안 '고용 없는 회복 (Jobless Recovery)' 시기의 주된 소비 여력으로 작용한 주택 시장의 호황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짐
- 특히 주택경기 침체는 '부의 효과'에 의한 구매력 저하를 통해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형성할 수 있음

○ (미국발 쓰나미로 세계 대공황 우려) 전세계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위축될 경우,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동시 불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

(전기대비, %)

구 분		2004	2005		
			1/4	2/4	3/4
성장	실질 GDP	4.2	3.8	3.3	3.8
소비	개인소비지출	3.9	0.9	0.8	1.0
	소비자신뢰지수	96.1	104.2	102.3	98.9
물가	소비자물가상승률	2.7	0.6	1.0	1.3
	근원물가상승률	1.8	0.6	0.5	0.4
건설경기	신규주택판매	10.8	0.5	3.0	-2.3

자료 : 미 상무부, 연준, Conference Board.

주 : 실질 GDP는 전기 대비 연율 기준, 소비자신뢰지수는 Conference Board(1985=100) 지수.

미 경제 침체에 대비한 내수 기반 확충, 위기 관리 능력 제고가 필요

- 미국 소비가 위축될 경우 韓·中·日, 아시아 개도국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은 외환 보유액 감소가 예상됨
 - 이 경우 아시아 국가들의 美 채권 수요가 급감하게 되어 미국의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다시 미국의 소비 및 주택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 특히 EU 지역도 당분간 내부적인 경제 통합 문제로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미국 경제가 침체될 경우의 안전판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¹⁰⁾
- (시사점)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기업은 고유가를 전제로 한 전사적인 위기관리 전략 수립이 급선무임
 - 정부 :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전략 수립, 가계 부채 구조조정 촉진에 의한 소비 시스템 회복 등 내수 기반 확충 노력이 절실함
 - 기업 : 기업은 고유가 전제 경영전략 수립, 선물 등 파생상품의 활용으로 적절한 위기 대응 및 리스크 관리 체계 수립, 수출선 다변화 및 제품 경쟁력 강화로 인한 대미 수출 경기 하강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이 필요함

< 미국 주택 가격 하락의 영향 >

미국 주택가격 하락 폭	미국 개인소비	미국 GDP	일본 GDP
-10%	-1%p	-0.7%p	-0.3%p
-20%	-2%p	-1.5%p	-0.7%p
-30%	-3%p	-2.2%p	-1.1%p
-40%	-4%p	-2.9%p	-1.4%p
-50%	-5%p	-3.6%p	-1.8%p

자료: 日本總合研究所; 日經ビジネス (2005. 10. 17) 재인용.

10) IMF는 2005년 EU의 경제성장률은 1.6%, 2006년은 2.1%로 전망하고 있으며, 만일 고유가 지속, 노사문제 해결 지연, EU의 정치적 현안 지연 등이 겹칠 경우 IMF 전망보다 낮은 성장률은 보일 가능성이 높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5. 9.

④ 동북아 물류 전쟁¹¹⁾

중국 양산항, 한국의 부산 신항 개장으로, 한중일 동북아 물류 전쟁이 격화될 전망

- (동북아 물류 전쟁 발발) 중국의 상하이 양산항 1단계 터미널이 2005년 11월 말 개장함에 따라, 한·중·일의 동북아 물류 시장 쟁탈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컨테이너 물동량 급증 : 중국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음
 - 중국(홍콩 포함)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2년 5,600만 TEU에서 2006년 1억 TEU로 두 배 가깝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반면 한국은 동기간 1,200만 TEU에서 1,700만 TEU, 일본은 1,400만 TEU에서 1,800TEU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물류 전략 : 양산항 개발은 컨테이너 물동량이 매년 25% 이상 급증하고 있는 상하이항을 아시아 허브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임
 - 물류 전략 : 중국 교통부는 '중국연해항구발전전략'을 통해 환발해권 항구군(다롄, 칭다오, 텐진), 장강삼각주 항구군(상하이, 닝보), 주강삼각주 항구군(선전, 다촨만, 난샤)의 3대 연안 항구군을 2010년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중국을 세계 물류 허브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임

11) 이하 논의는 Clarkson, Container Intelligence Monthly, November 2005; '해양수산부, 『전국 항만 물동량 예측』, 2004년 12월; 해양수산부,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2001년 10월, 최재선, 우종균, 양은주, '중국 양산항 개장의 영향과 대응방안', 해양수산개발원, 2005년 10월 10일; 日本 國土工通省, <http://www.mlit.go.jp/>; 日本 國土工通省, 交通政策審議會 港湾分科會, '經濟社會の變化に對應し, 國際競爭力の強化, 産業の再生, 循環型社會の構築などを通じて より良い暮らしを實現する 港湾政策のあり方(中間報告)', 2002年 7月 12日; 현대경제연구원 등을 참조.

중국은 상해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인근 앞바다에 50개 선석 규모의 양산항을 건설중

- 양산항 개발 : 특히 2004년 1,400만 TEU를 돌파하여 홍콩, 싱가포르항에 이어 세계 3위 컨테이너 항만으로 떠오른 상하이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2010년까지 2,500만 TEU까지 늘리기 위해 상하이항 앞바다 30km 지점에 2020년까지 50개 선석규모의 양산항을 개발중임
- 영향 : 15m 이상 수심을 갖춘 심수항의 대대적 확충은 대형 선박의 중국 직기항을 가능케 하여 그동안 중국 환적화물 증가에 힘입어 성장한 부산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일본까지 물동량 유치에 가세, 동북아 3국의 물류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임
- 한국의 물류 전략 : ‘동북아경제중심국가구현’을 위해 부산신항과 광양항 개발을 중심으로 동북아 물류허브 건설을 추진 중
 - 물류 전략 : 부산과 광양항의 동북아물류중심항만 육성을 위해 교통시설 투자배분비율 조정, 국제 경쟁력을 가진 물류전문기업 육성, 물류거래 투명화, 물류인력 양성, 국제물류 지원제도 개선 및 물류기업 유치, 막힘없고 서류 없는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동북아 철도망 구축의 7대 추진 과제를 제시
 - 부산 신항 육성 : 특히 중국의 물류 허브화 전략에 맞서 한국은 우선 2010년까지 19개 선석을 비롯 총 27개 선석(5만 톤급 컨테이너선 27척 동시접안 규모)의 부산신항을 건설 중임
 - 영향 : 한국은 항만 체질 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물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규모 확대를 통해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임

일본은 한신항, 케이
힌항, 이세만항의 3
개 슈퍼중추 항만을
선정 육성중

- 일본의 물류 전략 : 일본은 2002년 11월 國土交通省의 교통정책심의회에서 새로운 항만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아시아 주요 항만을 능가하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4년 7월에 3개 슈퍼중추항만을 선정

· 물류 전략 : 항만비용 30% 절감, 터미널 내 선박 체류 시간 1일로 단축(현재 3~4일) 단축 등을 통해 동북아 주요 항만을 능가하는 비용 및 서비스 수준 구현이 목표

· 슈퍼중추항만육성 : 한신항(阪神港 : 고베항-오사카항 연합), 케이힌항(京浜港 : 도쿄항 - 요코하마항 연합), 이세만(伊勢灣 : 나고야항-요카이치항 연합)의 3개 슈퍼중추항만을 선정 · 육성키로 함

· 영향 : 일본의 슈퍼중추항만 육성 전략의 중심이 서비스와 비용 인하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항만 전략과 상충되며, 특히 고베 대지진(1995년) 이후 물동량을 부산항에 내주었던 고베항의 재건 의지가 분명하여 향후 韓日간 물동량 쟁탈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대응 전략) 최적의 항만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한 입지여건을 바탕으로 물동량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함

- 최첨단 항만 개발 : 시설, 운영 등 비가격적 요인과 이용료 등 가격요인에서 경쟁 항만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물동량 유치 전략 : 중국-미주 항로의 중계 거점으로써 입지여건이 매우 우수한 장점을 바탕으로 대형 선사 유치 및 글로벌 부두운영사와 합작투자를 통해 물동량 유치에 힘써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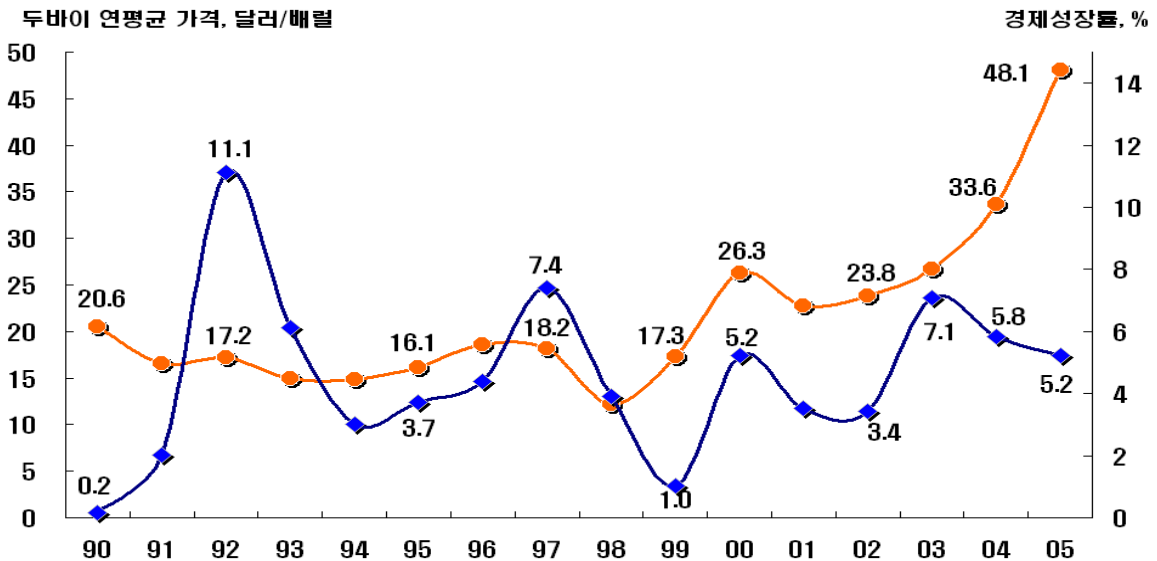
⑤ 중동, 새로운 성장 원천¹²⁾

중동 지역 경제는
고유가에 따르는 원
유 수출 증대로 구
매력 크게 증대됨

○ (급성장하는 중동 경제)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원유 수
출 증가와 경상수지 흑자 폭 증가로 중동 산유국 경제
는 2003년 이후 평균 5% 이상의 고성장을 보였으며,
2006년에도 4.5%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국제 유가 급등 : 2003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두바이 유
가가 2005년 3/4분기까지 배럴 당 평균 48.1 달러로 2002
년 23.8달러보다 두 배 이상 급상승함

< 국제 유가 및 중동 지역 산유국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 한국석유공사, IMF.

주: 1) 중동 지역 산유국 경제성장률은 바레인, 이란, 쿠웨이트, 리비아,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
라비아, 시리아, UAE의 9개국 평균임.

2) 2005년 두바이 유가는 3/4분기까지 평균치임.

12) 이하 논의는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Middle East and Central Asia Department, September 2005; OPEC, Annual Statistical Yearbook 2004;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4; The Economist(현대경제연구원 편역), The World in 2006(세계대전망), 한국경제신문, 2005년(발간예정); 한국석유공사; 현대경제연구원 등을 참조.

향후에도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원유 수출 증가에 의한 중동 경제의 고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원유 수출 증가 : 사우디, 이란, UAE, 쿠웨이트, 카타르, 리비아 등 6개 산유국의 석유 수출액은 2000년 1,607억 달러에서 2004년 2,353억 달러로 4년 동안 약 46.4% 증가
- 경상수지 흑자 폭 증가 : 한편 이들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 또한 2000년 555억 달러에서 2004년 852억 달러로 4년 동안 약 53.5% 증가함

○ (전망) 고유가 지속에 의한 원유 수출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 성장세 또한 지속될 것임

- 고유가 지속에 따르는 구매력 증가 : 고유가 지속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2006년에도 중동 산유국의 석유 수출 이익은 급증세를 보일 것이며, 이에 따른 이 지역 구매력 증가로 인해 인프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석유 수출 수익 증가 : 국제금융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Finance)는 2006년 걸프지역 석유 수출 수익이 3,0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이는 중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의 2006년 예상 무역수지 흑자 규모 2,000억 달러(IMF 전망치)의 1.5배 수준
 - 구매력 증가로 인한 인프라 수요 급증: 건설 수요, 정보통신 수요, 석유 및 가스 생산 설비 투자 증가 등 인프라 수요 급증 예상
 - 예컨대 중동 지역의 정보통신 부문 투자는 2005년 현재 GDP 대비 1%수준에서 향후 10년내 8%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부즈앨런해밀턴 전망)

- CERA(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전망 시점 2005년 11월)는 석유 시장이 공급 부족 상황에 직면할 경우 Dubai 가격은 2005년 연평균 배럴당 49.4달러에서 2006년에 67.3달러까지 상승(전년 대비 36% 상승)할 수 있음을 전망함

중동 경제의 높은 구매력을 감안하여, 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에너지 자원 외교 및 산업 진출 전략이 요구됨

- 금융 시장 성장 : 사우디아라비아의 증권거래소인 타다울 (Tadawul)은 세계에서 가장 급부상하는 주식시장으로 시장자본총액이 5,000억 달러에 달하며, 이 외에 두바이, 카타르, 바레인 또한 국제금융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음

○ (시사점)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자원 외교 및 기업에 대한 간접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기업은 건설 및 IT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산업 진출 전략이 필요함

- 정부 : 이 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자원 외교 및 정부개발원조 등을 통한 에너지 외교 및 기업에 대한 간접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건설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기술지원이 필요함

- 기업 : 기업은 중동 지역의 건설 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 지역 IT 인프라 구축 사업이나 금융 인프라 산업 진출 전략 마련이 시급함

· IT 인프라 진출 : 사우디, 이란, 리비아 등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의 IT 경쟁력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 부문 진출 전략이 시급함

· 인터넷 인구, 핸드폰 사용자 수 등에 있어 사우디, 이란 등 주요 중동국가의 수준은 한국의 많게는 1/3에서 적게는 1/20 수준으로 IT 인프라 수준이 매우 취약함

· 금융 인프라 진출 : 중동의 급격한 금융시장 확대는 새로운 국제금융허브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어, 조기 진출에 의한 선점 효과를 누려야 할 것임

⑥ 나노경제화¹³⁾

IT 기술의 발전, 고객 중심의 정보 지향 등으로, 소비자 니즈에 부응하는 나노 경제가 확산됨

- (의미) 나노경제(Nano Economy)란 소비자 개개인의 필요에 정확히 부응하는 상품, 서비스, 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시장규모를 확대시킨다는 뜻임
- (배경) 나노경제는 인터넷의 발달 및 보급에 의해 고객 지향 정보, 투명성 증대, 고객의 선택권 강화, 원가 절감 등의 요인들에 의해 발전하고 있음
 - 고객 지향 정보 : 고객의 필요에 부합한 정보, 고객들이 적기에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 시장의 유리상자화 : 상품 제공자 및 판매자가 제시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콘텐츠, 가격, 거래상대방의 안정성, 전가되는 위험 수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를 고객들은 원하는데 인터넷은 이것을 유리상자와 같이 투명하게 함
 - 고객의 선택권 강화 : 고객들은 전화 교환국, 온라인 통신, 온라인 중개인, 직접 접촉 등 구매를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즉각 이용 가능함
 - 원가 절감 : 고객들이 필요한 정보를 가상공간에서 즉시 교환할 수 있으며 공급 업체들은 정보 획득 및 마케팅 비용 등이 절감됨
 - 편리성 향상 :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고객이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편리성을 지니고 있음

13) 이하 논의는 신문식·장동식, 「보험회사 사이버마케팅의 활용 전망」,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3년 3월; Kaiser T., 'The Customer Shall Lead: E-Business Solutions for the New Insurance Industry,' The Geneva Paper on Risk and Insurance, Vol.27 No.1, January 2002; Institute for the Future, 2005 Ten-Year Forecast Perspective, <http://www.iftf.org/>; 다사카 히로시(이정환 옮김), 『e-비즈니스 혁명과 뉴미들맨』, 서울: 작가정신, 1999년; 조선일보, 2005년 11월 15일 등을 참조.

나노 경제 발전으로 파레토 법칙 붕괴, 롱 테일 효과, 약자의 연합, 풀뿌리 혁명 등의 현상이 발생함

○ (영향) 나노경제의 발전으로 파레토 법칙(Pareto's Rule)의 붕괴, 롱 테일 효과(Long Tail Effect), 약자의 연합, 풀뿌리 혁명(Grassroots Revolution) 등의 현상이 발생함

- 파레토 법칙¹⁴⁾의 붕괴와 롱 테일 효과 : 전체 상품의 20%가 전체 매출액의 80%를 차지한다는 파레토의 법칙이 붕괴되는 반면, 하위 80%의 상품이 상위 20%의 상품 매출을 압도하는 롱 테일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 매스 경제 (Mass Economy, 대량 생산 및 판매를 특징으로 함) 에서 하위 80%는 수만 많고 잘 팔리지 않는다는 뜻에서 롱 테일이라고 불림

· 사례 : 인터넷 서점 아마존의 판매 순위 10만 위 이하 소량 매출 책자의 판매 비중이 40%에 달하고 있으며, 인터넷 음악 스토어 iTunes도 하위 80%의 매출 비중이 50%에 육박하고 있음

- 약자 연합과 풀뿌리 혁명 : 인터넷 광고의 한 분야인 '검색 연동형 광고(인터넷 이용자의 실제 검색 수 비례 광고료 지급 방식)'는 매스경제의 약자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연합시킬 뿐 아니라 시장 규모를 확대시키는 등의 풀뿌리 운동을 통해 기존 오프라인 시장을 위협하고 있음

· 약자 연합 : 기존 배너 광고는 비싸고 불특정 다수가 대상으로 대기업 전유물이었으나, 검색 연동형 광고는 특정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

14)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Vilfredo Pareto)가 19세기 영국의 부와 소득의 유형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부의 불균형 현상으로 흔히 80대20법칙이라고 불리며, 전 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법칙임. 다른 사례로는 20%의 운전자가 전체 교통위반의 80% 정도 차지, 20%의 직원인 그 조직의 80%의 일을 수행, 전체 상품 중 20% 정도의 상품이 80%의 매출액 차지 등을 들 수 있음.

기업은 소비자 니즈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요구됨

계는 비용절감, 매출상승 등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킴
 · **풀뿌리 혁명** : 결국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비자 등 소위 오프라인 시장의 약자들은 인터넷 정보 교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약자를 연합시키고 이를 통해 매스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시장 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풀뿌리 혁명을 일으키고 있음

○ (대응 전략) 나노경제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며, 정부는 e-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와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함

- **기업** :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고, 가격을 과감히 인하해야 하며, 뛰어난 정보 검색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라** : 다양한 니치 상품군들을 갖추어 점점 다양화되어 가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충족시켜야 함

· **가격을 과감히 낮추라** : 미국의 인터넷 음악 스토어 랩소디는 한 곡당 99센트, 79센트, 49센트에 판매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49센트짜리 곡들이 다른 가격의 곡들보다 3배나 많이 팔렸음

· **뛰어난 정보 검색 시스템을 갖추라** :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보 검색 시스템이야말로 나노경제의 키워드임

- **정부** :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함

⑦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 디자인力¹⁵⁾

디자인이 시장 점유
율을 좌우할 정도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함

○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 디자인力) 최근 디자인을 제패
하는 기업이 시장을 제패하고 있음

- 기업 경쟁력도 디자인이 좌우 : 최근 기업 간 경쟁에 있
어서도 디자인이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디자인력이 뛰어난
기업이 시장을 제패하고 있음

- 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 (미국) : 1998~
2001년 사이에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한 기업은 Apple
Computer, 삼성이 17회로 공동 1위, 2위는 IBM으로 14
회, 3위는 Microsoft로 11회 등 세계 주요 기업들이 차지
- iF Design Award(독일): 2002년 상품, 포장, 운송과 공
공 디자인 부문에서 Siemens가 19개상 수상으로 1위,
IBM이 17개상 수상, Sony와 Sharp가 6개상, 삼성 외 3
개 기업이 5개상을 수상하여 상위에 입상함

< 세계 주요 디자인 강국의 디자인 산업 현황 >

구 분	미 국	영 국	일 본
디자이너 수	492,000명(2000년)	123,800명(2000년)	171,700명(2000년)
디자인 사업소 수	26,436개소(1997년)	4,000개소(2001년)	9,646개소(1999년)
디자인 시장 규모	5조1,934억 엔(2000년) GDP 대비 0.48%	5조3,213억 엔(2000년) GDP 대비 2.8%	2조2,094억 엔(1995년) GDP 대비 0.44%

자료: 日本戰略的デザイン活用研究會, '諸外國の事情', 2003년 2월 17일.

15) 이하 논의는 日本戰略的デザイン活用研究會, '諸外國の事情', 2003년 2월 17일; 經濟産業省, 『デザイン政策ハンドブック2005』, 2005년 3월; 經濟産業省, '戰略的デザイン活用研究會報告書について', 2003년 6월 10일; 東洋經濟, 2005년 10월 8일; 산업자원부,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2004년 6월 18일 등을 참조.

세계적 기업의 성공에는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적극적인 투자 등 디자인 경영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함

· Forbes紙 선정 100대 기업¹⁶⁾: 이들 기업 가운데 Forbes가 선정하는 100대 기업(2005년 4월 기준)에 IBM이 17위, Siemens가 36위, Microsoft가 47위, 닛산이 58위, 삼성이 62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디자인 경영 성공 사례) 삼성의 약진과 닛산 부활의 배경에는 디자인 경영에 대한 CEO의 강한 의지가 있었음

- 삼성의 약진 : ‘디자인이야말로 최후의 승부처’라는 이견희 회장의 방침아래 전사 디자인 담당 조직 통합, 삼성 디자인 멤버십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우수 인재 확보, 연 4차례에 걸친 CEO와 디자이너의 Design Decision Meeting 실시 등 디자인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킴

- 닛산의 부활 : 닛산의 부활은 흔히들 ‘카를로스 곤 혁명’으로 불리는 대규모 구조조정보다 카를로스 곤 회장의 ‘디자인은 무형의 투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외부 핵심 디자이너 영입, CEO와 디자이너의 Design Decision Meeting, 美日 디자인 센터 조직 통합 등의 디자인력 강화 노력의 결실임

○ (시사점) 정부는 디자인 산업과 육성 정책의 시너지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은 디자인 경쟁력이야말로 21세기 기업 경쟁력의 결정 요인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디자인력 향상을 통한 성장 전략 마련이 필요함

16) Forbes 100대 기업은 매출과 순익 자산 시가 총액 등 4개 부문을 종합평가하여 선정된 ‘세계 2,000대일류 기업(The World’s 2000 Leading Companies)’로 <http://www.Forbes.com/> 참조

정부는 행정 쇄신
교육 체계 개편 등
을 통해 디자인 산
업 육성 기반을 조
성해야 할 것임

- 정부 : 디자인 행정 쇄신, 디자인 교육 체계 개편 등을 통해 디자인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디자인 산업과 육성 정책이 최대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국의 디자인 경쟁력은 선진국의 70~80% : 한국의 디자인 경쟁력은 대만과 중국에는 앞서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의 70~80% (2001년, 1998년에는 60~70%) 에 불과하며, 산업 전반에 걸친 저조한 디자인 활용, 창의적 전문 디자인 부족 등 디자인 산업 기반이 약하다는 점임
 - 디자인 행정 쇄신 : 이벤트성 정책을 지양하고 영국의 밀레니엄 프로덕트 프로젝트나 웨어링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와 같이 한국 비즈니스의 혁신성과 창조성을 높이기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발굴하고, 이를 국내 산업계 및 교육계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적인 정책 운영 필요
 - 디자인 교육 내실화 : 영국은 학교 교육과 이벤트의 연계(Designers into Schools Week), 디자인 석사 과정과 비즈니스 접목(Professional Practice, 산학 연계) 및 비즈니스 스쿨, Design Management Course에서는 기업 실무와 직결된 지도(The Surrey Institute of Design)가 있음

- 기업 : CEO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전사적인 디자인 중시 풍토 조성과 디자인을 통한 브랜드 정체성의 확립 뿐 아니라 점점 다양화·세분화·개성화 되어가는 고객의 잠재적 수요를 신속히 파악하여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3. 시사점 및 대응 방안

○ (시사점) 대외 7대 트렌드는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위협 요인이자 기회 요인임

- 위협 요인 : 美日 네오콘 강화로 인한 동북아 政冷經熱, 美中 대립 심화로 인한 간접적 피해 전망, 세계 경제의 안정성 붕괴 위험 고조로 인한 대외 성장 환경 악화, 동북아 지역 경쟁 심화 등 위협 요인이 존재함
- 기회 요인 :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정치·외교적 중요성 확대, 중동 지역 인프라 사업 확대를 통한 대외적 성장 기반 확대, 나노경제화 진전에 따르는 국내 잠재 시장 확대 등 기회 요인 또한 존재함

○ 대응 방안

정부는 2006년 대외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동북아 중재자 역할 수행, 대외 경제 협력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정부 정책 과제

- 동북아 중재자 역할 수행 : 한국 정부는 韓美 공조 체제 강화를 통해 에너지 안전보장을 확보하고, 對中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해 일본의 우경화 견제 및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한 중재자 역할 수행, 美中 대립에 의한 간접적인 피해 회피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대외 경제 협력 강화** : 규제 완화와 세율 인하 등으로 외수 부진 안전판을 마련하고, 동아시아 경제 협력 강화 등 대외 경제 협력 강화 추진
- **물동량 적극 유치** : 최적의 항만시스템 구축, 중국과 미주 항로 중계 입지 조건의 우수함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물동량 유치 추진

기업은 신시장 개척, 수출선 다변화, 소비자 중심의 경영 등의 전략이 요구됨

- 기업의 대응 방안

- **신시장 개척** : 중동 지역 주요 산유국에 대한 건설, IT 등 인프라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금융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 필요
- **수출선 다변화 및 제품 경쟁력 강화** :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 고조로 인한 리스크 회피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선 다변화, 제품 경쟁력 강화 등 수출 불안에 대비
-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한 전략** : 최적 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식 정보화 시대의 개인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전략 필요
- **CEO의 디자인 리더십 강화** : 디자인력의 중요성 및 디자인력 향상을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CEO의 디자인 리더십을 강화 대책 마련

II. 2006년 대내 7대 트렌드 변화

1. 개요

- 2006년 국내적으로 예상되는 정치, 경제, 산업, 남북, 경영 5대 부문의 7대 트렌드를 선정함
- 2006년 정부 정책 방향과 기업 경영에 참고해야 할 국내 정치, 경제, 산업, 남북, 경영의 5대 부문의 7대 트렌드를 선정함
 - 정치와 부동산 경기의 딜레마 : 최근 10년 동안의 전국 선거 실시 직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볼 때, 2006년 5월 예정된 제4회 동시 지방 선거라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일 우려가 존재함
 - 또한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정치권의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립이 완화되고 융합되면서 경제 정책면에서 실용주의 노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투자 촉진과 같은 성장 중시 정책이 보다 중시될 전망이다
 - 복합 무역의 확산 : 상품 수출의 한계,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정부와 기업의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증대 노력이 예상됨에 따라 상품, 서비스 등이 연계된 선진 무역 구조인 복합 무역이 전개될 전망이다
 - 소비 환류의 단절 : 상위 계층의 구매력이 계속 증가할 뿐 아니라 중상위 소득 계층도 자신의 감각에 맞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출을 아끼지 않고 있어, 부유층 소비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기업 판도의 재편 : 기업 M&A (인수·합병)가 투자 위험을 줄이면서 수익 창출과 기업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각광을 받을 것임
 - 디지로그 (DigiLog)의 확산 : 디지털 제품과 아날로그 인프라,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적 정서가 결합된 디지로그화가 심화되면서, 기업의 새로운 경쟁 요소로 급부상함

- 통일 경제 기반 확대 : 남북경협은 개성공단 사업 본격화, 개성 및 백두산 관광 등으로 한 단계 성숙될 예상임
- 컨버전스 전성시대 : IT 기술의 발전으로 기술과 제품의 컨버전스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산업 구조는 물론 소비자들의 패턴까지 변화시킴

< 2006년 대내 7대 트렌드 >



2. 대내 7대 트렌드

① 정치와 부동산 경기의 딜레마

2006년 5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10여 년 동안의 전국선거와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2006년은 5월로 예정된 제4회 동시 지방 선거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유발할 우려가 존재함
- (선거의 부동산 경기 진작 효과) 최근 10년 동안의 부동산 가격 추세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대선, 국회의원 선거, 동시 지방선거 등 전국적인 선거 직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

< 전국 선거 직전 6개월 동안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화 >

(%)

구 분		전국	서울	강북	강남
1회 동시지방선거	95년 6월	0.20	0.10	-0.10	0.20
15대 국회의원선거	96년 4월	1.30	0.50	0.20	0.70
15대 대통령선거	97년 12월	0.18	0.83	1.03	0.64
2회 동시지방선거	98년 6월	-11.82	-15.17	-14.47	-15.55
16대 국회의원선거	2000년 4월	1.96	4.10	2.35	5.13
3회 동시지방선거	2002년 6월	8.79	10.47	8.44	11.61
16대 대통령선거	2002년 12월	6.93	8.35	6.95	9.15
17대 국회의원선거	2004년 4월	0.29	0.86	0.75	0.95
평균 가격 상승률 (2회 동시지방선거 제외)		2.81	3.60	2.80	4.05

자료 : 국민은행.

- 주 : 1) 원지수는 2003.9=100 기준의 실질 데이터이며, 위 수치는 6개월 전 대비 증가율임
 2) 1995년 1월~2005년 11월까지의 6개월 전 대비 실질 아파트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 서울, 강북, 강남 지역이 각각 2.1%, 2.9%, 1.5%, 3.7%를 기록함. 이는 이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대체로 상승 추세에 있었지만 특히 전국 선거 직전 6개월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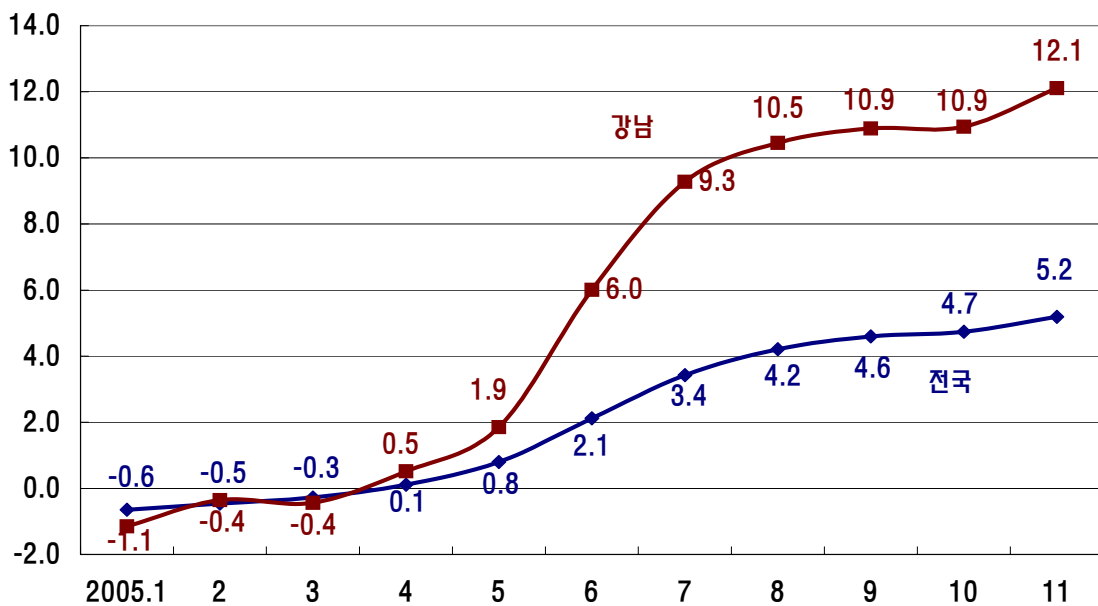
과거의 경험상 전국 동시 선거 직전의 경우, 포퓰리즘적 규제 완화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나타남

- 7번의 전국 선거에서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3.60%로 전국 평균 2.81%를 크게 상회함
- 1995년 이후 총 8번의 전국적인 선거중 98년을 제외한 7번의 선거에서, 선거월의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실질 가격 기준)이 6개월 전보다 상승하였으며 7번의 평균 가격 상승률은 약 2.81%로 나타남
 - 또한 강북 지역은 2.80%로 전국 평균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강남 지역은 4.05%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 (원인)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도시 재개발 사업 등 각종 규제 완화가 선거철에 집중될 것이라는 기대와, 후보자들의 인기영합적 공약 남발로 부동산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 심리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됨

<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가율 추이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국민은행

최근에 재건축과 같은 부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냄

- (2006년 상반기 부동산 가격 불안 예상) 『8·31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주춤했던 부동산 가격이 11월에 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조짐 등이 나타나고 있음
 -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 : 강남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8·31 대책 이후 상승세가 주춤하였으나, 11월에 들어 전년동월대비 12.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함
 -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조짐 : 최근 건설교통위원회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강남 재건축 완화, 기반 시설부담금 부과 기준 완화 등을 언급하기도 함
 - 한편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정치권의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립이 완화되고 융합되면서 경제 정책면에서 실용주의 노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투자 촉진과 같은 성장 중시 정책이 보다 중시될 전망이다
- (대응 방안) 부동산 안정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여, 2006년 상반기의 지방 선거 실시에 따르는 민간의 부동산 가격 인플레이 심리를 불식시켜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8·31 대책의 조속한 국회 통과, 국지적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의 지양, 생산적 자금화를 위한 주식 시장의 안정성 유지 등의 다각적인 대응책이 필요함
 - 다만 8·31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이 건설 경기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신도시 개발, 주택 공급 확대, 민자를 활용한 SOC 투자 등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② 복합 무역의 확산

무역 6,000억 달러가 도래하고 있으나, 중국 부상 등 글로벌 경쟁 심화로 상품 수출로부터 얻는 이익이 제한적임

- 상품 수출의 한계,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정부와 기업의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증대 노력이 예상됨에 따라 상품, 서비스, 인력 등이 연계된 선진 무역 구조인 복합 무역이 전개될 전망이다
- (무역 6,000억 달러 시대 도래) 국내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개방화,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2005년 우리나라의 무역액은 5,000억 달러, 2006년에는 6,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
 - 2004년 홍콩의 무역액이 5,386억 달러(세계 11위)였던 점을 감안할 때 2005년 우리나라의 무역액 5,370억 달러는 세계 12위권으로 평가됨
- (대내외 무역 환경 변화) 교역 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서비스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으나 취약한 경쟁력으로 서비스 무역 역조가 심화되고 있음
 - 상품 수출의 한계 : 교역 조건 악화에 따르는 수익성 악화, 글로벌 경쟁 심화, 중국 제조업의 성장 등으로 상품 수출이 한계에 직면함
 - 순상품 교역 조건은 2000년 10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 1~9월에 79.7를 기록함
 - 서비스 수지 적자 확대 : DDA, FTA 등으로 관광, 교육, 의료 등 서비스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어 서비스 교역 증가율이 상품 부문을 넘어서고 있지만, 취약한 경쟁력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확대됨
 - 2000년 28.5억 달러 적자에 불과했던 서비스 수지 적자폭은 2005년 1~9월에 105.9억 달러로 급증함

세계적인 서비스 교역 증가, 국내 서비스 산업 개방 등으로 국내 서비스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 (복합 무역 활성화)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무역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한류(韓流)의 확산, 정부의 서비스 무역 지원 정책 등으로 상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복합 무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세계 서비스 무역 비중 확대 :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수출이 상품 수출 증가세를 상회하고 있어 향후 세계 무역은 상품과 서비스 무역이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성장하는 복합 무역의 시대로 진입할 것임

- 한류(韓流) 확산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윤사마 열풍'과 같은 한류 문화의 확산에 따르는 상품화에서 보듯이 서비스 수출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확인

- 정부의 서비스 무역 지원 : 최근 정부는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수출 보험 및 무역 금융 지원 강화 등과 같은 서비스 무역 지원 정책을 추진중임 (산업자원부, '서비스수출 확대 방안 수립', 2005. 11.)

○ (시사점과 과제) 한국 경제의 높은 교역의존도,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 지원 정책이 필요함

- 무엇보다도 상품과 서비스가 연계된 복합 무역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재화, 서비스, 인력까지 모든 것이 무역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는 영화와 같은 문화콘텐츠 산업, 한류 관련 관광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원 정책의 체계화 및 일원화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전 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가율 >

	1980~1990	1990~2003
상품 수출 (연평균 증가율, %)	5.4	6.1
서비스 수출 (연평균 증가율, %)	8.0	6.4

자료 : 산업자원부, '서비스수출 증대대책', 2004. 6. 25.

③ 소비 환류의 단절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고소득 저소득 계층간 소비 양극화도 지속됨

- 상위 계층의 구매력의 증가, 가치 중심의 소비문화 확산 등으로 고급 소비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저소득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소비 시장의 부진이 지속되는 소비 환류의 단절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소비 환류의 단절) 내수 회복세가 미약하고 생활필수품 시장도 여전히 부진하지만, 명품 등 고급 사치재 시장은 최근 2~3년간 호황세가 강화됨
 - 2003년 이후 소비 부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백화점 명품과 가정용품 매출 증가율 격차가 10%p 이상 유지되는 등 소비 고급화 현상이 뚜렷함
 - 도소매 판매 지수는 2003년 하반기와 2004년 하반기에 각각 -1.9% 및 -1.4%의 감소세를 나타내었으나, 2005년 7~10월 중 3.4%의 증가세로 반전됨
 - 그러나 소비가 전반적인 침체를 보인 同 기간 중에도 백화점 명품은 -2.3%에서 12.1%로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인 반면, 가정용품은 2005년 7~10월중 -0.6%의 감소세에 머물고 있음

< 유통시장 매출 양극화 추이 >

	2003 하반기	2004년		2005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7-10월
도소매 판매 지수	-1.9	-0.7	-1.4	0.1	3.4
백화점 명품 (A)	-2.3	-1.9	4.9	2.8	12.1
백화점 가정용품 (B)	-15.2	-14.7	-5.9	1.0	-0.6
A-B (%p)	12.9	12.8	10.8	1.8	12.7

자료 : 산업자원부, 통계청.
 주 :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부유층 시장의 확대
로, 중상위 계층을
겨냥한 기업들의 판
매 전략이 강화됨

- 부자 마케팅 확대 : 최근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최상위 부유층, 또는 잠재적 부유층 내지 중상위 계층을 겨냥한 상품 판매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 (2005년 10월 11~15일 사이의 주요 일간지)
 - 최근 대기업들은 대형 세단과 홈시어터 등 프리미엄 제품 생산을 늘리고 슈퍼 부유층 고객의 DB를 교환하는 등 부유층을 겨냥한 판매 전략을 강화
 - 은행 등 금융기관도 최상위 고객(5~10% 이내)을 대상으로 하는 PB 시장 쟁탈전을 벌이고 있으며, 후발 금융기관들은 잠재적 최상위층과 중상위층 고객을 포함시켜 부자를 세분화하는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음

○ (고급 소비 시장 확대의 원인) 상위 계층의 소득 증가, 가치 중심의 소비문화 확산 등이 원인임

- 상위 계층의 소득 증가 : 성과 중심적 보수 체계의 도입과 자산價 상승으로 상위 계층 소득이 빠르게 증가
 - 임금 및 고용의 양극화 : 주주 중심주의 및 스톡옵션제 도입과 같은 성과주의 보수체계 도입 등으로 상장 대기업 일부 임원의 연봉이 크게 증가
 - 자산 가격 급등 :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 주가 및 금리 상승 등으로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상위 계층의 자산 소득 증가
- 소비 고급화 : 상위 고객의 구매력이 급증하고, 중위 고객의 소비도 부분적으로 고급화되면서 소비가 양극화되고 있음

고소득층의 해외소비 유출 방지를 위한 국내 고가품 시장 규제 완화, 저소득층의 생필품 시장에 대한 안전성 강화 등의 정책이 요구됨

- 주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고소득층의 구매력이 크게 확대
 - 또한 최근에는 중위 계층의 소비자들도 평상시의 생필품 소비는 최대한 절약하는 반면, 자신의 감성적 만족을 위해서는 고급 소비를 주저하지 않는 가치 소비 현상이 뚜렷함(Trading Up-Trading Down 현상)
- (대응 방안) 고가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고소득 계층의 구매력이 해외 소비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내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고가 제품에 대한 규제 완화 : 부유층 및 중상위 계층의 늘어나는 구매력이 해외로 이탈되지 않도록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 규제를 완화
 - 부자들이 당당히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되 세금 탈루는 엄격히 차단
 - 저소득층 지원 확대 : 서민층이 소외되어 사회 결속력 저하 및 자원 배분의 왜곡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용 불량자 규제 확대, 생필품과 음식료에 대한 품질·안전 관리 강화, 저가 제품의 유통구조 개선 등의 지원책이 필요함
 -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는 좁은 범위의 부유층 네트워크에 집중하여 친근감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들 부유층의 감성에 맞는 새로운 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④ 기업 판도의 재편

투자 위험과 국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기업들의 사업 확장 방법의 대안으로 M&A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

- 기업 M&A (인수·합병)가 투자 위험을 줄이면서 수익 창출과 기업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
- 2003년 이후 M&A가 동종 업체를 중심으로 다시 활성화되고 있으며, 시장 지배력 확대와 신사업 진출 수단으로 부각됨

- 현황 : M&A 건수는 2003년 576건 (13.7조 원)에서 2004년에 691건 (16.2조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05년 10월 22일 현재 427건에 이르고 있음

- 특징 : 최근 M&A는 동종 업체 간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과거의 부실기업 떠안기 혹은 몸집 부풀리기에서 시장 지배력 확대와 신사업 진출의 수단으로 정착중임

- 12월 결산 상장회사 보유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2000년 6월 9.9조 원(각사당 평균 97.5억 원)에서 2005년 9월 23.1조 원 (1사당 평균 44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금융사, 보고서 미제출사, 결산기 변경사 제외)
 · 현금등가물이란 취득당시 만기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취득당시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3개월 이내의 환매조건인 환매채를 의미(이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국내 기업의 M&A 건수와 액수 추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건수	703	644	602	576	691	427
액수 (조 원)	30.7	13.5	15.3	13.7	16.2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경제신문.

주 : 건수와 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국내기업간 M&A와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M&A를 포함하며, 외국기업간 M&A는 제외. 단, 2005년은 10월 22일 까지 실적이며 한국경제신문 2005년 11월 15일자 기사 인용.

2006년 많은 구조조정 완료 기업들이 매각 예정에 있어, M&A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 배경 : M&A가 低위험 고수익의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자금력 또한 충분한 상황이므로 판단됨
 - 기존 사업의 수익성 확충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고 신사업의 투자 위험이 부담이 되는 기업들에게,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의 인수·합병은 고수익을 창출하고 투자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음
 -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및 재무구조 개선에 성공하면서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M&A 확대의 가능성을 높임

○ (전망) 2006년에는 많은 기업들이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을 마치고 M&A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어서, M&A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주요 대상 기업 : 시가 총액이 1조 원이 넘고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있는 건설한 기업들이 M&A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음
 - 금융 기관 : 외환은행, 대우증권, LG카드
 - 건설 회사 : 현대건설, 대우건설, 쌍용건설
 - 기타 : 하이닉스, 대한통운, 대우조선해양, 대우인터내셔널 등
- M&A의 활성화 : 대우건설 인수에 국내외의 총 40여 개 업체가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대한통운 인수에 앞서 일부 기업들이 해당 주식을 대량 매입하는 등 M&A 활성화 조짐이 나타남

국내 우량 기업들이
외국계 투기 자금에
인수되지 않도록 투
자자 다변화 유도,
反적대적 M&A 제
도 도입 등이 필요

- **대우건설** : 국내외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군인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국내외 투자자들이 인수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 **대한통운** : 이미 STX (System Technology eXcellence)가 지분 21.3%를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대한통운 주식을 대량 매수하여 지분율을 14.7%까지 증가시켜 놓고 있어 두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짐
- 한편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이 외환은행, LG카드에 대한 인수에 높은 관심을 표명함

○ (대응 방안)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건전성을 확보한 국내 우량 기업들이 외국계 투기 자금에 인수되지 않도록 M&A 관련 법안을 정비해야 함

- **투자자의 다변화 유도** : 전략적 투자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금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사모투자펀드 (PEF : Private Equity Fund)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함
 - PEF 최소 지출 금액 하향, 투자 의무 비율 완화 등의 규제 개선이 필요함
- **외국 자본의 적대적 M&A 방어** : 차등 의결권이나 이익 반환법 등 미국,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反 적대적 M&A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함
 - **차등 의결권** : 의결권이 보통주보다 차등적으로 많은 특별주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
 - **이익 반환법** : 적대적 M&A 선언 이후 주가 상승으로 인한 지분 매각 차익이 발생할 경우 M&A 대상 회사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함

⑤ 디지로그 (DigiLog)의 확산

디지털 기술에 아날로그적 정서가 결합된 디지로그가 확산되고 있음

-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융합하는 디지로그 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의 새로운 경쟁 요소로 급부상함
- (디지로그의 의미) 디지털 (Digital)과 아날로그 (Analog)의 합성어로 디지털 제품과 아날로그 기반,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적 정서가 결합한 제품과 서비스가 늘어나는 현상을 의미함

- 디지로그 부상의 배경 : 디지털화로 인해 증대된 편익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기반이 전제가 되어야 함

- 디지털 사회라고 해서 아날로그적 사고와 형태들이 사라질 수는 없으며, 디지털 사회가 제대로 구성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적 행태들도 보다 풍부해지고 성숙해야 함

- 전자 상거래가 제대로 확산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물류라는 아날로그적인 기반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해야 함
- 결국 쇼핑몰 업체들이 물류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물류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킨다면 디지털의 발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

-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과 소비자들의 '인간적인 정감'이 결합한 새로운 제품들이 개발됨

- 상품 개발 사례 : 최근의 디지로그 상품 개발 사례로는 수동 기능 장착 디지털 카메라, 뿔박스 모양의 MP3, 펜 태블릿과 펜 마우스 등이 있음 (한국경제신문 2005 5. 30 인용)

< 참고 > 디지로그 상품의 예

- 수동 기능 장착 디지털 카메라 : 엡슨의 디지털 카메라 'R-D1'은 디지로그 상품의 대표적 예로 들 수 있음
 - 아날로그 장치 내장 : 디지털 센서는 내장되어 있지만 사진을 찍을 때마다 필름 와인더를 감도록 설계됨
 - 가격은 디지털 제품 이상 : 이 제품의 가격은 순수 디지털 제품보다 비싼 360만 원대임

- 붐박스 모양 MP3 : 엠피오의 'FG100'은 유명 일간지인 빌트의 인터넷 판에서 '베스트 MP3 플레이어'로 선정됨
 - 특징 : 세련미를 강조하고 있는 최신 제품보다 디자인은 투박하지만 추억을 자극하는 따뜻함이 있음

- 펜 태블릿과 펜 마우스 : 종이와 연필을 사용하는 것처럼 태블릿(판) 위에 전자 펜으로 그림, 문자 등을 입력함으로써 딱딱한 디지털 필체에서 벗어나 '나의 서체'를 전달하려는 아날로그의 감성을 활용한 제품으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 보급형 제품으로 인기가 있음
 - 펜 태블릿 : 와콤의 '그라파이어' 시리즈와 미니 팬태블릿 '펜파트너' 등
 - 펜 마우스 : 와우테크의 '와우펜', 펜지의 '펜지' 등
 - MSN의 잉크 대화 기능 : MSN 메신저 7.0에도 디지로그가 반영된 '잉크 대화'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키보드 대신 자신의 필체로 글이나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새로운 대화 기능임

디지로그 시대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변화를 빨리 읽고, 인간 중심의 기술을 개발해야 함

○ (시사점) 한국은 일본, 중국, 영국 등의 국가들처럼 0(맞다)과 1(아니다)로 구성되는 디지털 패러다임과는 달리 아날로그 패러다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융합문화로서의 강점을 살려야 할 것임 (이어령, 한국공학한림원 창립 10주년 리셉션 초청 강연, 2005. 10. 31)

- 한국의 디지로그 : 한국은 언어 뿐 아니라 여러 생활과 문화에서 디지로그가 발견되고 있음

· 언어 : 호프집에서 '맥주 한 병, 두 병'이 아닌 '한두서너 병 갖다 주세요'라고 주문해도 웨이터가 알아듣고, 서랍으로 양쪽으로 움직인다는 뜻인 '빠닫이'는 중국, 일본 등에서는 '끌어당기는 뜻'으로만 사용

· 한류 문화 :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된 디지로그 코드가 한류에도 존재했기 때문에 한류문화가 아시아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음

○ (디지로그 시대의 성공 전략) 디지로그 시대에는 문화의 변화를 빨리 감지하고 인간 중심의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음

- 문화 변화를 읽어라 : 향후 세계 상품 시장에서는 문화 변화를 누가 빨리 읽어내고 이를 상품 개발에 연결시키느냐가 주요 경쟁 전략이 될 것임

- 인간 중심의 기술을 개발하라 : 디지로그 시대에는 인간 중심의 기술 개발이 중요한 코드로 작용할 전망이므로, 공학 기술은 디지털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할 것임

⑥ 통일 경제 기반 확대

남북 경협은 상업적 거래 증가, 지원성 물자 확대 등으로 고성장세를 지속

- 2006년 남북경협은 개성공단 사업의 본격화, 개성 및 백두산 관광 등으로 한 단계 더 성숙될 전망이다, 북핵 문제, 경협 재원 부족이 제약 요인으로 지적됨
- (남북경협 두 자릿수 시대 개막) 상업적 거래 증가와 남북 관계 회복에 따른 지원성 물자 증가로 2005년 남북경협은 11억 달러 내외가 기대
- 상업적 거래의 급증세 : 개성공단 개발 및 금강산 관광 사업의 확대에 따른 관련 교역의 증가로 상업적 거래가 65.0%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
 - 개성공단 및 금강산 사업과 관련한 반출이 전체 반출의 34.2%를 차지했으며, 이로 인해 상업적 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3.4%나 증가
 - 금강산 관광객도 10월말까지 전년 대비 20%나 늘어난 연 30만 명 시대 도래

< 거래 유형별 남북 경협 추이 >

(단위 : 100만 달러)

	상업적 거래				비상업적 거래	합계
	일반교역	위탁교역	경제협력	소계		
1995	230.4	45.9	0	276.3	11.0	287.3
2000	110.5	129.2	33.6	273.3	151.8	425.1
2002	171.8	171.2	25.0	367.9	273.8	641.7
2004	171.8	176.0	88.7	436.5	260.5	697.0
2005.1~10	165.0	172.5	226.0	563.6	312.1	875.6
(증가율)	20.9%	19.1%	276.2%	65.0%	51.0%	59.7%

주 : 1) 상업적 거래의 경제협력은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기타 경협사업을 의미하고, 비상업적 거래는 정부·민간 지원과 사회·문화 협력사업, 경수로 건설과 KEDO 중유 제공 등을 포함함
 2)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임.

향후 개성 공단 사업 본격화 등으로 남북 경협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제 외적 불안 요인도 상존함

- 지원성 물자 증가 : 비상업적 거래의 비중이 1~10월중 전년 동기의 37.7%에서 35.6%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
 - 특히 2005년 1~10월까지 쌀과 비료를 비롯한 대북 지원이 52.1%나 증가
 - 남북 경협 급신장 : 2005년 1~10월말 현재, 중 남북 교역은 전년 동기간의 5억 4,800만 달러보다 59.7%나 늘어난 8억 7,560만 달러를 기록
 - 제도화 진전 :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의 12개항 합의와 후속 실무회담 개최, 9개 경협합의서 발효 등으로 투자의 불안정성이 개선
- (전망) 경협 인프라 개선과 개성공단 사업의 본격화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제 외적 불안 요인 등은 본격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
- 경협 여건 개선 : 인프라 확충과 법적·제도적 측면의 개선, 남북 관계의 회복 등으로 남북 경협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
 - 전력과 통신, 경의선 도로·철도 연결 등의 SOC 확충과 함께,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의 남북경협 사무소 개설과 통행·통관 절차 개선 등에 합의
 - 경협 사업 본격화 : 개성공단의 본격 가동과 관광 지구의 확대 등으로 상업적 거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개성공단 시범단지의 본격 가동과 1차 본단지의 공장 건설을 비롯, 금강산 및 개성·백두산으로의 관광 확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등이 기대

정부는 북핵 문제와 같은 경협 확대의 제약 요인들에 대한 해소, 경협의 제도화 진전 등의 노력에 주력해야 함

- 북핵 합의 이행이 관건 : 6자 공동성명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미간의 근본적인 입장차와 불신 존재로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워, 본격적인 경협 활성화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다만 북핵 문제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경우에는 에너지·물류·통신망 등의 SOC 부문을 비롯하여, 경공업과 농림수산업, 지하자원 개발 부문에서 대규모 경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과제) 경제 외적 불안 요인의 해소는 물론, 기합의 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경협의 제도화 진전, 남북경협기금 확충 등이 요구됨

- 북핵 합의 이행 :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의 조화 속에, 단계적·동시 이행 원칙을 통한 북미간의 불신 해소와 신뢰 형성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함
- 전략물자 반출 규정의 신축적 운영 : 개성공단 개발 사업의 취지와 중요성, 반출 물자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방안 제시 등을 통해 교육용 및 산업용에 한해서는 허용될 수 있도록 주변국을 설득
- 안정적인 인력 공급과 노무관리 : 북측 인력의 고용 확대와 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인력 공급 계획(산·학·연 합동체제의 가칭 '통일경제 아카데미' 개설)과 협력적 노사 문화 정착 방안을 강구
- 경협 재원 확충 : 중장기 대북 지원 프로그램 마련과 시중 부동 자금의 '북한개발자금화' 및 '통일기금화'를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 방안을 모색

⑦ 컨버전스 전성시대

인터넷의 빠른 확산으로 컴퓨터, 통신, 방송 간의 융합을 시작으로, 컨버전스 시대가 도래함

- IT 기술의 발전으로 기술과 제품의 컨버전스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산업 구조는 물론 소비자들의 패턴까지 변화시키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영 컨버전스 전략이 요구됨
- (컨버전스 시대의 도래) 인터넷의 도입으로 컴퓨터·통신·방송·매체간의 컨버전스가 시작되었으며, 압축·전송·광대역 기술이 발전하면서 융합화를 더욱 촉진시킴
 - 미디어 중심 하에 변화하는 소비자의 수요는 다양성, 맞춤형, 이동성을 기반으로 다중적 이용(multi-use)에 대한 편익을 추구하고 있음
 - 결국, 서비스 분류와 사업자 분류 등, IT 기업들을 규제했던 법 제도들이 완화되면서 본격적인 컨버전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의의) 이제 컨버전스는 지식정보화시대의 키워드로서 신사업 창출을 추구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구도를 재편하는 혁명으로 평가받음
 - IT에서 비롯된 컨버전스는 기술이나 제품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활동에 이르기 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음
 - 따라서, 컨버전스는 새로운 사업, 새로운 문화를 창조시키는 이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음
- (컨버전스의 유형) 컨버전스란 유·무형의 기술, 제품, 경영활동이 융합·통합되는 것을 의미함
 - 기술 컨버전스 : 유·무형의 기술들이 융합·통합되는 것으로 IT 기술 융합과 타 산업 기술 융합으로 구분됨
 - 타 산업간의 기술 융합 : 생체정보처리(IT+BT), 메카트로닉스(IT+기계), 생체 친화성 재료기술(IT+재료) 등

컨버전스는 기술 컨버전스, 제품 컨버전스, 경영 컨버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IT 기술의 융합 : 반도체·통신·방송·가전 등이 하나의 제품으로 융합되는 디지털 컨버전스로 휴대폰에 게임, 방송이 융합된 것이 대표적인 예임
- 제품 컨버전스 : 제품과 제품, 제품과 서비스, 서비스와 서비스가 융합되는 것을 말함
 - 제품과 제품의 융합은 휴대폰과 카메라,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와 같이 기존에 각각의 기능을 하던 제품들이 하나의 제품으로 통합되는 경우임
 -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은 자동차와 할부금융, 제품 판매와 사후관리 서비스 등이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되어 판매되는 것을 말함
 - 서비스와 서비스의 융합은 은행과 보험이 융합한 방카슈랑스나, 인터넷과 방송이 융합된 인터넷 방송이 예임
- 경영 컨버전스 : 기업의 내·외부 경영활동들을 융합하여 경영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프로슈머, 편경영, e-learning 등이 대표적인 예임
 - 프로슈머(Prosumer)란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가 통합된 개념으로 고객이 상품개발의 주체가 되어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말함
 - 편(Fun)경영은 웃음과 재미를 통해 기업의 조직문화를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감성과 경영의 융합에서 비롯되었음
 - e-learning은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시스템으로 과거 오프라인 행해지던 기업교육과 인터넷을 융합한 경우임
- 이중,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IT 기술들의 융·통합인 디지털 컨버전스로 근래 이슈가 되는 유비쿼터스 사회가 이를 기반으로 함
 - 제품·경영의 컨버전스는 기업의 매출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디지털 컨버전스는 기업·산업을 넘어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음

소비자 생활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이 나타나고 있어, 기업은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키워야 함

- 특히, 통신서비스의 가치사슬 확대에 따라 경계영역에 인접한 기존 서비스들의 매력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신시장 개발이 가능함
 -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모바일 뱅킹서비스, 텔레매틱스, 홈 네트워킹 등이 컨버전스의 대표적인 신시장임
- (기업의 대응 전략) 컨버전스의 등장은 소비자의 생활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를 거치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컨버전스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핵심 역량을 요구함
 - 경영 컨버전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철저한 분석능력이 필요함
 - 통신과 방송, 인터넷 등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던 산업구조가 컨버전스 상품들로 인해 통합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경쟁 범위가 특정 산업에서 소비자의 욕구차원으로 변화한다는 것으로, 향후 전개될 시장구조에 대한 철저한 분석능력이 필요함을 의미함
 - 둘째, 제품개발, 마케팅, 인사 등 분리·운영되어온 경영활동들을 통합·융합시킬 수 있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함
 - 경영 컨버전스의 효익은 제품뿐만 아니라 각각의 경영활동을 결합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임
 - 따라서, 기존의 형식적인 사고 틀을 과감히 깨트릴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함
 - 셋째, 기술·제품의 결합·융합을 위해 외부와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
 - 특정 기업이 결합·융합에 필요한 아이디어, 노하우, 기술들을 모두 소유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필요한 능력을 외부와 협력하여 조달하는 전략적 제휴가 경영 컨버전스 실현의 필수요소임

3. 시사점 및 대응 방안

- (시사점) 2006년 예상되는 대내 7대 트렌드는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위협 요인이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함

- 위협 요인

- 동시지방선거에 따르는 부동산 시장 불안
- 시장 개방에 의한 서비스 산업의 타격
- 부유층 소비 시장 확대에 따르는 사회 내 위화감 조성

- 기회 요인

-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 확대
- 부유층 소비 시장의 성장
- M&A 시장의 활성화
- 새로운 경쟁 코드로써의 디지털 등장
- 남북 경협이 성숙
- 컨버전스 시대의 도래

2006년 예상되는 국내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 남북 경협 제도화, 적대적 M&A 방지 등의 노력이 요구됨

- 대응 방안

- 정부 정책 과제

- 부동산 안정 정책의 유지, 제조업과 동등한 서비스 산업 지원, 고가품에 대한 규제 완화,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이 필요함
- 한편 북한과의 경제 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기합의 사항

의 성실한 이행과 경협이 제도화 진전, 남북경협기금
확충 등이 요구됨

-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건전성을 확보한 국내 우량 기업
들이 외국계 투기 자금이 인수되지 않도록 PEF의 활성화,
적대적 M&A 방지를 위한 법제 마련 등의 정책이
필요함

기업은 새로운 소비
문화의 흐름을 파악
하고 제품에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하며,
M&A 시장에 참여
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축해야 함

- 기업의 대응 방안

- 기업은 위험을 줄이면서 수익 창출과 기업 성장을 추구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M&A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 또한 소비의 고급화, 디지로그 시대의 도래라는 사회·
문화의 트렌드 변화에 빨리 적응하여, 생산 제품과 서
비스의 고급화에 주력하고 인간 중심의 기술 개발에 주
력해야 함
- 특히 각 부분의 컨버전스 현상에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중심의 산업 구조 변화에 분
석 능력제고, 경영 활동의 융·통합, 기술·제품의 결합·
융합을 위한 전략적 제휴 등이 필요함 **HRI**

경제연구본부 (bkyoo@hri.co.kr) ☎ 02-3669-4032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0	2001	2002	2003	2004(P)	2005(P)	2006(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8.5	3.8	7.0	3.1	4.6	4.0	4.5
	최종소비지출 (%)	7.1	4.9	7.6	-0.3	0.2	-	3.6
	민간소비 (%)	8.4	4.9	7.9	-1.2	-0.5	3.2	3.5
	총고정자본형성 (%)	12.2	-0.2	6.6	4.0	1.9	-	3.1
	건설투자 (%)	-0.7	6.0	5.3	7.9	1.1	0.3	1.5
	설비투자 (%)	33.6	-9.0	7.5	-1.2	3.8	5.1	5.5
대 외 통 계 관 거 기 래 준	경상수지 (억 \$)	122	80	54	119	282	166	80
	무역수지 (억 \$)	118	93	103	150	294	235	120
	수출 (억 \$)	1,723	1,504	1,625	1,938	2,538	2,847	3,120
	증가율 (%)	(19.9)	(-12.7)	(8.0)	(19.3)	(31.0)	(12.2)	(9.6)
	수입 (억 \$)	1,605	1,411	1,521	1,788	2,245	2,612	3,000
	증가율 (%)	(34.0)	(-12.1)	(7.8)	(17.6)	(25.5)	(16.3)	(14.8)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3	4.1	2.7	3.6	3.6	2.7	3.2
	실업률 (%)	4.1	3.8	3.1	3.4	3.7	3.7	3.5
금 융	원/\$ 환율 (평균, 원)	1,131	1,291	1,253	1,192	1,145	1,024	980
	국고채금리 (평균, %)	8.3	5.7	5.8	4.6	4.1	4.3	4.6

주: 2005년 국민 계정은 한은 속보치 기준이며, 최종소비지출 및 총고정자본형성은 미발표됨.